

Vending  
한국장애인경제인자판기(주)

## 권칠용 대표이사

### 성인인증 담배자판기, 반드시 장애인 유망사업으로 정착 시키겠다

한동안 조용했던 담배자판기 시장의 새로운 뇌관이 점화되고 있다. 한국장애인경제인자판기(주)가 장애인의 성공 창업을 위한 성인 담배자판기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임에 따라 큰 시장 파급력이 기대되고 있다. 잘만 되면 담배자판기 시장의 최대 호재가 될 수 있는 이 특급 프로젝트에 거는 기대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한국장애인경제인자판기의 권칠용 대표이사를 만나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펼쳐나갈지에 대해 들어 봤다.

#### 한국장애인경제인자판기(주) 출범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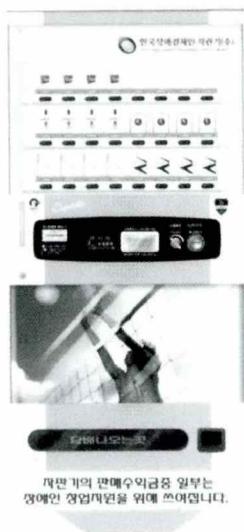
» 우리 회사의 발족되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가 설립되게 된 과정과 목적부터 말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다. 지난 2005년 정부는 전국 장애인의 기업활동과 창업을 지원하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제정 시행했다. 이 법의 취지를 살리고 효과적인 장애인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허가를 얻어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가 지난 8월 17일 발족·출범이 되었



다. 전국의 등록 장애인만 187만 명이 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실질 장애인만해도 450만명으로 추정되는 현실에서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한 정부의 뜨거운 관심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 단체는 전국 38개의 장애인 임의단체를 아우르는 경제단체로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게 된다. 장애인 창업 자금지원, 기술지원, 판로지원, 컨설팅 지원 등의 활동을 앞으로 펼쳐가게 된다. 우리 회사는 이러한 한국장애인협회의 설립취

지를 살려 장애인 대상 성인인증 담배자판기 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청 승인을 받아 발족이 이루어졌다.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담배자판기 사업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유망사업이라는 점에서 단체 설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 왜 담배자판기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유망사업 분야인가.



>> 우선 담배자판기 사업은 음료자판기 만큼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KT&G에서 보급한 3000여대의 제품밖에 전개되어 있지 않아 시장이 무주공산이라 할 만큼 광범위하다. 따라서 장애인이 하는 사업으로 장소 협찬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

다는 장점이 있고, 시장 개척이 용이하다.

두 번째 요인으로 들 수 있는 점은 가격경쟁이 필요 없는 담배사업 특수성이다. 담배는 공시가격으로 팔 수 밖에 없도록 법제화되어 있어 안정적인 유통마진의 확보가 가능하다. 이점은 장애인 관련 사업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비근한 예로 음료자판기 사업을 장애인이 펼쳐 간다면 일반 OP와의 가격경쟁을 당해낼 수가 없다. 그만큼 경쟁은 치열하고 장애인이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펼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담배는 일정 유통마진을 그대로 취하면 되기 때문에 가격경쟁을 펼칠 필요가 없다. 이 마진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어 장애인 관련 사업으로 더할 나위가 없다 할 수 있다.

## 얼핏 보면 장애인이 일정금액을 투자해 담배자판기 운영사업을 성공적으로 펼친다는 게 쉽지 만은 않을 것 같다.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방법을 통해 수익사업으로서 장점을 강화할 계획인가.

>> 이에 있어선 일반 자동판매기 사업의 두 가지 측면을 주목해야 한다. 한 가지 측면은 장애인이 소액 자본을 투자해 먹고 살 수 있는 자판기 특유의 사업적인 장점이다. 반면 장애인으로써 관리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단점도 있다. 우리가 계획 중인 성인인증담배자판기 사업은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선 장애인이 우리의 사업에 투자를 하려면 1구좌(10대)가 기본 요건이다. 10대의 자판기를 구입하면 자격요건이 생긴다. 10대 투자하는데는 부가세 포함해 4,290만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 투자금액을 장애인이 조달하기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준다. 2000만원 정도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융자를 받아 차후 소득발생에 따른 소득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

관리를 하기 힘든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업 위탁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채택했다.

중증장애인으로서 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없거나 타인의 도움이 불가피한 사람들을 위해 사업운영을 대신해 준다. 로케이션 섭외에서, 설치, 내용물 공급 판매, 사후관리 등을 회사 관리팀에서 전담해

장애인 사업으로서 수익성 안정보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반드시 장애인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다.

서 해주기 때문에 운영결과에 따라 수익만을 챙기면 된다. 어떠한 장애인이라도 사업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 어느 정도의 시장 파급력을 예상하고 있는가

» 이 사업모델은 세계 최초이다. 담배 독과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사업모델인지도 모른다. 이 사업모델을 가지고 서울, 경기, 대구 등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졌더는데 반응이 뜨거웠다.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점, 시장진입이 쉽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벌써 40여명의 사업자 신청을 받아 놓은 상황이고 서울지회는 사업 희망자가 너무 많아 사업자를 선별해야 할지도 모른다.

전체 시장 규모는 장애인 한사람이 한 구좌에 투자하는 걸로 가정할 때 2,500명 정도가 되면 최대치로 보고 있다.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해 생계를 이어가는 좋은 사업 모델이라는 점에서 사업자 확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장애인 대상으로 담배자판기만 사업모델이 되는가, 아니면 다른 자판기 아이템도 사업모델로 추가할 계획은 있는가.

» 현재로서는 성인인증 담배자판기 사업에만 주력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안정단계에 접어들

면 멀티자판기 사업도 후속으로 펼쳐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섭외하는 로케이션 중에는 멀티자판기가 효용가치가 높은 로케이션이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장애인 창업도 돋고 자판기 산업도 발전시키는 공공성이 큰 프로젝트로서 기대가 크다. 끝으로 어떤 모토로 성인인증담배자판기 사업을 펼쳐 갈지를 밝혀 달라.

»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는 공익성을 무엇보다 중시할 계획이다. 이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반드시 장애인을 위해 쓸 계획이며, 직원도 가능하면 장애인을 쓸 계획이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들릴지 모르겠지만 국민건강을 위한 청소년 보호 캠페인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성인인증장치를 통해 청소년 담배구입을 차단하고 더불어 청소년 흡연의 위험을 주지시키면서 공공성이 큰 담배자판기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아울러 성인에 있어선 이왕 펼 담배면 장애인이 파는 담배를 피우도록 유도하는 계몽활동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둘째로는 장애인 사업으로서 수익성 안정보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반드시 장애인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다.